

전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유치 박차 가한다

서울서 재경향우 대상 투자설명회 2200세대 친환경 레저 주택단지 문화·레저 일상 주택사업에 관심 “혁신 정주여건·기업 인프라 구축”

전남도가 재경향우를 대상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경향우 시군 지회 회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과 향우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설명회를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 위더스 웨딩홀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투자

환경과 지구별 주요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재경향우와 교류하며 투자 관련 의견을 나눴다.

참석 향우들은 솔라시도 개발사업 중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SGV) 주택사업과 서울지역 은퇴자를 위한 골드시티,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여건을 위한 스마트 시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는 혁신적 정주 여건과, 문화와 레저가 일상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첫 주택사업이다. 솔라시도CC 옆에 조성되는 22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골프장 조망을 가진 제로에너지 친환경 레저 주택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다양한 공급 면적과 테라스, 정원 등 특화된 구조로 정주형 수요와 세컨하우스형 수요를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주택 단지와 함께 클럽하우스, 다목적 체육관, 컨벤션홀, 열린도서관, 쇼핑센터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전남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인 2000여 세대의 리조트 주택단지와 서울·지방 상생형 주택사업인 골드시티도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가 주택을 서울주택공사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지방에 조성된 골드시티 신규 주택을 공급

하는 사업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도 골드시티를 조성해 서울지역 은퇴자,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의 전남도 이주·정착을 지원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는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셔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차용수 재경 강진군 향우회장은 “솔라시도 개발계획을 직접 들으니 전남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첨단도시의

완성이 멀지 않은 것 같다”며 “솔라시도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전남이 대도약하도록 재경향우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는 최근 국가 재정지원 사업 유치,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 개장,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혁신적 정주여건 조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주택 분양 등 솔라시도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도시공,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협의체 출범

광주도시공사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 관내 7개 지방공기업들과 협력해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환경공단,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총 7개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시

민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4가지 주요 항목을 약속했다.

협약식 후, 광주 상무역 일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Let’s baby’ 캠페인을 진행하며, 각 기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극복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저출산·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힘을 모아 협력해 가고자 한다. 앞으로 광주가 아이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통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광주교통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전문인증기관이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한 채용 절차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선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채용검증위원회 도입·운영 △신규채용 인원의 높은 만족도 및 낮은 이직률 등 차별 없고 객관적인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펼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모범 기업으로서 공정한 채용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 빛을 품다’ 전시

27일까지 18개 작품 선보

지역미디어아트거점센터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지맵·G.MAP)’은 13일부터 27일까지 디지털아트 컬처랩 전시인 ‘광주, 빛을 품다’를 선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남구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1~3층에서 이뤄지며, 컬처랩 사업에 참여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신진작가(프로젝트랩) 10개 팀과 작가를 꿈꾸는 예비작가(인큐베이팅랩) 8개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탄생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키네틱아트, 아나몰픽 아트, 사운드 퍼포먼스 등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아트 컬처랩’ 사업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

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품 창작 기획과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LG헬로비전, 닷밀, 젠틀몬스터, 사일로랩 등 문화예술 전문기업의 임직원이 컬처랩 프로그램 참여자 작품 제작에 직접 멘토로 참여했다. 전시가 시작되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작가들의 제작 의도, 과정, 작품을 더욱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작발표회(쇼케이스)도 열린다.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 전시만족도 설문 등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

노병하 기자



무역의날... 수출의탑 광주 전수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광주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관련기사 13면

광주시 제공

전남도, 내년 학교급식 지원사업 준비 착착

식재료 위생관리·개선 시스템 안내

전남도는 1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년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식중독 발생 예방법과 개선된 급식 시스템 등을 안내했다.

간담회는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앞두고 식재료 위생 교육과 친환경 급식 조달 시스템 개선 안내,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교육에선 노

희경 동신대학교 교수가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를 상세히 다루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세척 방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식재료 검수 및 보관 요령을 강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선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의 개선 사항인 보조금 정산, 친환경인증정보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어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2025년 사업 추진 시 개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 내용과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영양교사, 공급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를 400원(현금 무상급식 200원·현물친환경급식 200원) 인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2199개교에 재학 중인 21만9000여 명에게 1651억 원(도·시군 55%·교육청 45% 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우호도시 사마르칸트 문화 만나보세요”

광주시, 16일까지 시청 1층서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 전시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시청 1층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 전시’를 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광주시는 올해 우호도시이자 동서문명의 교차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광주 고려인의 원류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첨단기술로 보전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우르그벡 마드라사’ 아카이빙 데이터를 기초로 전시조형물을 제작해 전시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아시아 문화유산 아카이빙 데이터는 광주시와 사마르칸트시의 우호도시 협력에 따라 아시아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현지에 제공될 예정이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가치 확보 및 다문화 정책 확장을 위한 전시·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증심사, 희경루, 양

림동, 옛 전남도청 일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광대역 라이더 스캔 데이터와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했으며, 광주의 인공지능(AI) 및 문화 기술로 문화유산을 아카이빙하고 콘텐츠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광주형 문화유산 보존·활용 모델이다.

한편 사마르칸트시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동서문명의 교차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시가 중앙아시아와 우호도시 협력을 맺은 첫 도시이다.

노병하 기자